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9월 19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수산물 지원센터	담당자	• 수산물보급팀장 이의진 ☎458-7461 • 담당자 황윤재 ☎458-746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가가치 ‘용다시마’ , 인천바다서 양식 가능성 찾는다
 - 인천시, 2023년도 해수부 연구·교습어장 공모선정 -
 - 무의도 해역에서 2년간 ‘용다시마’ 양식접합성 등 현장적용 기술개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연구·교습어장 공모 사업을 통해 「용다시마 현장적용 기술개발」 연구과제가 신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교습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양식품종과 어구·어법을 개발하거나 연구기관의 시험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과제의 품종인 ‘용다시마’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해조류로 일반 다시마에 비해 ‘후코이단’이라는 유용성분이 2배 이상 많아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용다시마의 무분별한 채취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자원량이 급감함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2021년 인공종자 대량생산 및 복원에 성공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용다시마 현장적용 기술개발을 통해 인천의 해조류 양식품종을 다각화하고 생산기술을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확립된 양식기술은 양식어업인에게 이전해 신 소득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어가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23년부터 2년간 총 7,600만원(1년차 4,000만원, 2년차 3,600만원)으로 용다시마 양성환경조사 및 연구를 통해 인천시 관내 연안 무의도 해역에서 양식적합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연구·교습어장 사업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등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 및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



연구·교습어장 공모사업 평가